



고창군이 상수도 검침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을 운영한다.

내년 고창군 상수도 원격 운영

디지털계량기 등 전자장비 활용 실시간 검침 시스템... 누수가구 사전 파악 등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상수도 검침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을 운영한다.

7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상수도 검침은 검침원이 직접 방문해 검침·부과하는 체계로 부재가구의 검침누락과 입력오류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원격검침은 디지털계량기 등 전자장비를 활용해 실시간 검침하는 시스템으로 부재중 가구의 검침, 누수가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이 시스템 도입으로 독거노인, 중증환자 등 단독가구의 수도사용량

유무에 따라 이상여부를 파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마을이장에게 연락해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역할도 하게 된다.

또한, 군은 상수도 서비스의 업그레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70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누수를 점검해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누수로 인한 어르신들의 걱정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상수도사업의 적자를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35.7%에 이르는 누수율을 잡기 위해 상수도사업소 내에 2개 반으로 상시 누수탐사반을 편성·운영해 구간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2018년에는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누수율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상수도 사용요금에 도내 시군 중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상수도 사용요금에 생산원가 대비 1/3 수준에 불과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이 인상된다고 설명하고 내년 1월부터는 사용요금에 12.5% 인상을 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면 신뢰받는 행정, 누수사전점검을 통한 원가절감, 사회안전망 확보 등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내 토종미생물을 적극 발굴하여 명품고창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황국곰팡이 활용 유해인자 저감 연구결과 발표

바이오제닉 아민

순창군 장류사업소 연구진이 황국곰팡이(Aspergillus oryzae)를 활용해 발효과정 중에 발생하는 식품의 유해인자인 바이오제닉 아민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군 장류사업소 연구진은 한국미생물학회 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9월 1~4일까지 일산 컨벤션에서 열린 2016 한국미생물학회연합회 국제학술대회(2016 International meeting of the federation of korean microbiological societies)에서 장류 곰팡이에 관해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순창군 장류사업소 연구진은 이미 지난 2015년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주관 제42회 국제학술 및 정기학술대회에서 토종 곰팡이인 황국곰팡이(Aspergillus oryzae)는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Aspergillus oryzae)을 생성하지 않고 단백질 분해 활성과 전분 분해 활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한바 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5년 연구의 후속으로 황국곰팡이(Aspergillus oryzae)와 보리, 쌀 등 다양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된장을 제조하고 품질에 대해 평가한 결과, 발효과정 중에 발생하는 식품의 유해인자인 바이오제닉 아민이 검출되지 않았고, GABA와 같은 기능성 물질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연구결과로 실제 지역 농산물과 황국곰팡이를 활용해 유해인자를 저감시킨 장류제품 실용

화 가능성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순창군 장류사업소 김재건 소장은 "본 연구 사업을 통해 발굴된 토종 곰팡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연구의 후속 조치로 국내 토종미생물을 보급할 수 있는 생산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국내에 보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장류사업소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함께 2014년부터 농촌진흥청 어젠다 R&D 과제 '약주, 증류주 및 장류 제조를 위한 종균화 기반연구'를 통해 토종 곰팡이 활용을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총력'

음면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국도 23호선 확포장 등 5개 사업 국회 반영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 온 박우정 고창군수가 막바지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 군수는 7일 국회 예결위위원회를 방문해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김광수 예결위원을 만나 고창군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기획재정부에 반영된 내년도 국가예산이 국회에서도 최종적으로 확보되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창군은 특히 공음면 칠암천 지방

하천 정비사업과 국도 23호선 확포장, 고창읍성급경사지 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국회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지금까지 국회와 중앙부처를 38차례 방문해 고창개발 생태계 복원사업 등 30건의 신규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한 칠암천 정비사업과, 국도 23호선 확포장 사업을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

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박우정 군수는 "예산심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국회를 방문해 적극적인 설득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해 전략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회 과정에서 한빛원전 민간 환경·안전감시센터 기능강화 사업, 동촌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목표한 현안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11일까지 도로 안내 표지판 일제 전수조사

임실군이 관광객 및 지역민 편의를 위해 '도로 안내 표지판 일제 전수조사'를 오는 11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농어촌 도로 등 396개 노선 안내 표지판의 노후화, 훼손 및 이탈자, 내용수정사항을 점검하고 오는 2017

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조기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하 분기점 방향, 이정표, 경계 등의 안내판을 군과 읍면 담당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조사하고 관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내 표지판,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운전자의 빠른 길찾기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카톡 무료 이모티콘

'금연클리닉' 검색 후 친구 맺으면 7일부터 무료다운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ICT의 발달과 건강증진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모바일 헬스케어의 일환으로 전국 보건소 최초의 카카오톡 무료 이모티콘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이모티콘은 남원의 춘향전과 흥부전의 주인공을 모델로 남원시 홍보와 금연, 절주 등 건강을 주제로 제작되었으며, 카카오톡에서 '남원시보건소 금연클리닉'을 검색해 친구를 맺으면 전국 누구나 11월 7일부터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4명이 이용하는 모바일 1위 메신저로, 월 4천만명 이상이 연령에

제한 없이 사용하는 세대 간 소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친구나 지인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이모티콘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청소년 및 주민의 건강한 생활 실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마련되었으며 남원시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친구를 맺은 이들에게는 유익한 건강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친숙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 갑질형포 심층 토론회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에서는 7일 2층 소회의실에서 9월 1일부터 추진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갑질형포) 특별단속'에 대한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심층 토론회에서 서장을 중심으로 각 과장, 계(팀)장 및 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소위 '갑질 형포'에 대해 2건에 3명을 검거한 사례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고, 위협감 조성 및 사회 통합 및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정보 수집 및 단속 요령에 대해 토론하였다.

최규운 서장은 "국민 눈높이 맞춘 중심 깊은 수사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에 따른 지원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갑질 형포근절을 위한 관내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자"라고 강조하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정순임 명창, 동리대상 수상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인 '제26회 동리대상 시상식'이 지난 8일 고창동리극단에서 개최됐다.

시상식에서 판소리 전통계승과 후학 양성을 통한 전통문화 진흥에 전념한 공로로 정순임(74) 명창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시상식은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장, 도의원, 군의원, 기관 사회단체장과 동리문화사업회 이만우 이사장, 동리 신재호 후손, 국악인과 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정순임 명창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어머니 정월중선 명창과 정응민 명창, 박송희 명창 문하에서 판소리를 배우고 '제3회 남도예술제'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07년에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4호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지정됐다.

정순임 명창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어머니 정월중선 명창과 정응민 명창, 박송희 명창 문하에서 판소리를 배우고 '제3회 남도예술제'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07년에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4호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지정됐다.

또한 판소리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경북 경주에 1998년 정순임 판소리 연구소를 만들어 후학 양성과 판소리 전승보존에 힘쓰고 있다.

정순임 명창은 "판소리의 성지인 고창에서 최고 권위의 상을 받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격스럽다"며, "앞으로도 올곧은 소리꾼의 길을 걸으면서 스승이자 어머니인 정월중선 명창

순창군 범죄예방 결의대회 성료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 다져

순창군자율방범연합회(대장 김영)가 주관한 '2016 순창군 범죄예방 결의대회'가 지난 6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원 부군수와 순창군의회 김중섭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 기관단체장과 자율방범대원 및 가족들 6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기념식을 비롯해 체육대회, 화합한마당 행사를 통해 대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

또 결의문 낭독을 통해 마을방범과 범죄예방, 주민보호, 청소년 선도 등 지역차이에 양장서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도 진행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

의 소리를 전승하고 후학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판소리발전과 진흥에 많은 애를 써주신 정순임 명창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동리대상은 신재호 선생이 이룩한 판소리의 역사적 물줄기를 형성한 위업을 올바르게 이어나가기 위해 제정한 상인만큼 앞으로도 위중하고 권위 있는 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며 판소리를 비롯한 우리 고유의 전통예술과 문화가 가진 아름다움을 더욱 널리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은 동리 신재호 영정에 차를 올리는 헌대례와 시상식 이후, 정 명창의 흥보가 공연과 정 명창의 제자회가 준비한 판소리, 단막극, 민요, 가야금병창 축하공연이 화려하게 꾸며졌다.

한편 '동리대상'은 고창군과 (사)동리문화사업회가 동리 신재호의 문화 예술사적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판소리 진흥에 업적을 남긴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상장과 함께, 15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하는 국내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청소년수련회, 워크숍 개최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백혜신)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인천 및 경기도 일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순창군청소년수련회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책임져 할로윈'이라는 주제로 일품공원 및 향토관에서 지역 청소년과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순창군청소년수련회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책임져 할로윈'이라는 주제로 일품공원 및 향토관에서 지역 청소년과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순창군청소년수련회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책임져 할로윈'이라는 주제로 일품공원 및 향토관에서 지역 청소년과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신동원 부군수는 "11개 읍면 곳곳에서 마을 방범과 주민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 해 주고 계시는 대원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순창의 치안이 더욱 견고해 지고 있다"고 말하며 방범대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순창군자율방범연합회 김영 대장은 "대원들 모두가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늦은 밤 불을 밝혀 지역 방범과 주민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마음으로 열의를 다지는 시간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순창군자율방범연합회는 야간 방범순찰활동을 비롯해 순창장류축제 등 각종 행사 교통지도 봉사활동, 범죄예방 캠페인, 환경정화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우체국, 정치후원금 500만원 기탁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임실우체국 국장실에서 정치후원금 기탁식을 갖고, 임실우체국 공무원 55명이 깨끗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기부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기탁 받았다.

김상훈 임실우체국장은 "정치자금 기부에 자발적 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되고 깨끗한 정치문화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원들과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해 주신 기탁금은 민주 정치를 발

전시키는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후원금 기탁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기탁받아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 및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관할 선관위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누구나 기탁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 워크숍 개최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백혜신)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인천 및 경기도 일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여성단체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여성의 역할이 점차 다양해지고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정연용 경기교육대 교수의 '스마트 여성리더의 자기경영 전략'을 주제로 여성리더의 핵심역량 강화, 명품조직 만들기를 위한 교육을 비롯해 웃음치료 및 문화탐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임실=진홍영 기자